

대형매장, 불경기에 ‘공실 줄이기’ 안간힘

롯데마트 첨단점 순창 특산물전 ‘팝업 스토어’ 운영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무산 부지에 주차장 조성
이마트, 자투리 공간에 ‘노브랜드’ 매장 마련

광주지역 대형 소매점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들 매장에 들어가려는 상인들의 ‘입점 경쟁’도 옛말이 됐다. 백화점, 대형 마트는 ‘팝업 스토어’ 형식의 임시 매장이나 주차장 등을 조성하며 ‘공실(空室)·유휴부지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5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마트 첨단점 1층에는 지난 달부터 ‘순창군 특산물전’이 팝업스토어(임시 매장) 형태로 문을 열고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5평(16㎡) 남짓한 공간에는 순창군에서 생산된 발효 고추장, 잼, 차, 도자기 등이 선보여지고 있다.

식당가 모퉁이에 자리잡은 이 공간은 롯데마트가 넉 달 전부터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왔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임대업체 가맹점주 모집 현수막을 내걸어도 수개월 동안 새 주인이 나오지 않아 12월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상주 인력이 순창군 특산물 안내책자를 나눠주는 등 판매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첨단점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롯데슈퍼 첨단점은 최근 매장 입구 인근에 있던 패스트푸드점이 이전하면서 수개월째 공실이 유지되고 있다.

쌍암동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에는 지하 1층·지상 39층 규모 ‘롯데슈퍼 주상복합’이 지어질 예정이라 한동안 공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부지에 지난 달 주차장을 조성했다.

광주신세계는 모델하우스 임대계약을 유지하면서 주변 유휴부지에 179면 규모 노상 주차장을 만들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 주차공간 880면, 신관을 포함한 이마트 1360면 등 2240면 규모 주차장을 운영해왔다”며 “주말마다 주위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등으로 주차난이 되풀이 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달부터 특급호텔 건립 무산으로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공간을 179면 규모 야외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난 8월 13일 만에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마친 이마트 광주점은 캠퍼용품을 전시했던 2층 중앙부분에 전기차 업체를 입점시켰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매년 2배 넘게 성장하는 흐름에 맞춰 소형전기차 2종과 다목적 전기차 3종 등 총 9종의 전기차를 선보이며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이마트 측 설명이다.

광주·전남지역 8개 이마트는 에스컬레이터 옆 등 자투리 공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PB상품인 ‘노브랜드’를 한데 모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임대료가 어려운 좁은 공간을 알뜰히 사용하고 있다. 롯데백

화점은 매장을 개편할 때 1층 입구 인근 행사장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다. “고객이 매장을 출입할 때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당대 트렌드에 맞는 가구·패션·생활용품 등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이 백화점 측 설명이다.

대형 유통매장 조차도 장기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내수 시장 부진과 무관치 않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5%(백화점 4.9%·대형마트 6.1% ↓)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2.64 (+12.40)	↓ 금리 (국고채 3년) 1.52 (-0.03)
↑ 코스닥 672.18 (+3.73)	↓ 환율 (USD) 1157.50 (-1.70)

광주서 ‘아·태 전기공사협회 총회’ 개최

6~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력산업 정책·시장정보 공유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19 FAPECA(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회) 총회 및 컨퍼런스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한전에서 개최하는 BIXPO 2019와 연계 개최돼 8개 회원국(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하와이)에서 116명의 해외대표단이 참석하고 정부, 정계, 학계는 물론 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총 4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행사 첫째 날인 6일 BIXPO 전시회 참관과 환영 만찬 등으로 진행되고 이튿날엔 Power System Interconnection(전력계통연계)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국가별 주제발표, 기조연설(정부기관 인사), FAPECA 이사회, 환송 만찬 등의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에서는 문재도 전임 산업부차관과, 조환의 전임 한전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대표로 유동욱 전기연구원 부원장이 주제 발표한다.

마지막 날인 8일엔 관계자들이 BIXPO 테크니컬 투어에 참석해 한전 ESS센터, 한전전력연구원 등 산업시설물을 방문하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는 (FAPECA)는 1986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제안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전기공사업 연합체 조직을 위해 설립됐다.

연 1회의 연차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주제발표, 연차 이사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기공사협회간의 민간교류 및 지역 내 전기공사업의 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FAPECA 총회 및 컨퍼런스는 198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1회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돼 올해 33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의장국인 대한민국에서 8년만에 개최된다.

류재선 회장(FAPECA 의장)은 “이번 FAPECA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FAPECA 의장국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준비해 부담이 컸지만 다른 회원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 큰 무리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며 “BIXPO 2019와 연계 개최로 대한민국 전력분야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전력산업 정부정책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휘발유값 전국 대비 저렴한 편

지난 달 전남10·광주15번째

부터 1525.76원(4주)→1525.37원(5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10월 마지막 주 광주 휘발유 가격은 첫째 주보다 0.2% 감소하고, 전남은 0.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최고 평균 유가가 1635.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저 평균은 대구 1059.73원이었다. 이들 가격은 1당 125.75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 주유소 판매가는 10월 첫째 주 1543.28원에서 다섯째 주 1537.03원으로 6.25원 인하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10월에 국제휘발유 가격은 1당 47.45원 인하한 데 비해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20.03원 인하해 국제가 대비 리터당 27.42원 더 적게 인하했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1당 6.25원을 인하해 1당 41.20원 더 적게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 휘발유 가격은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1524.62원(1주)→1525.87원(2주)→1526.08원(3주)으로 올랐지만 넷째 주

부터 1525.76원(4주)→1525.37원(5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10월 마지막 주 광주 휘발유 가격은 첫째 주보다 0.2% 감소하고, 전남은 0.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최고 평균 유가가 1635.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저 평균은 대구 1059.73원이었다. 이들 가격은 1당 125.75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 주유소 판매가는 10월 첫째 주 1543.28원에서 다섯째 주 1537.03원으로 6.25원 인하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10월에 국제휘발유 가격은 1당 47.45원 인하한 데 비해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20.03원 인하해 국제가 대비 리터당 27.42원 더 적게 인하했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1당 6.25원을 인하해 1당 41.20원 더 적게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뒷줄 왼쪽 네번째)는 지난 4일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침체된 양돈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사회’를 열고 5일까지 삼겹·목심을 25% 할인 판매했다. <전남농협 제공>

해양에너지,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탁 감사패 받아

(주)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인재육성재단에 2015년부터 5년간 성적우수자 및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예체능특기자 등 초·중·고, 대학생 181명에게 장학금(총3

억원)을 전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은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14년도에 설립됐다. 이에 발맞춰

(주)해양에너지는 전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남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주)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는 “지역 인재는 곧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므로, 회사는 전남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

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해양에너지는 장학금 기탁 외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GIST 배움마당, 복지관 배식봉사, 김장나눔, 산타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